

2 뉴스

행복기숙사
선발기준
변경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행복기숙사 선발기준이 변경됐다. 변경된 선발기준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우리신문은 지난 3월 행복기숙사 선발 거리 점수 기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행복기숙사 선발 거리 점수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대학주보 제1681호 (2022.03.02.))

기준에 재학생은 ▲소득분위(50%) ▲거리(40%) ▲성적(10%)을 기준으로 선발됐다. 신입생은 거리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동일 점수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거리 점수 부여 기준이 ▲수도권(경기/인천) 지역 50점 ▲비수도권 및 해외 지역 100점으로 단순하게 나눠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다.

이에 행복기숙사 행정실은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 총장 및 관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선발기준을 변경했다. 재학생은 ▲소득분위(50%) ▲거리(30%) ▲성적(20%)으로 선발기준이 변경됐다. 신입생 또한 ▲수도권(경기/인천) 지역 50점 ▲천안 춘천 아산 등 수도권 지하철 권역 지방 80점 ▲비수도권 및 해외 지역 100점으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는 “재학생의 경우 거리점수가 차지하는

분류	변경 전	변경 후
재학생	▲ 소득분위(50%) ▲ 거리(40%) ▲ 성적(10%)	▲ 소득분위(50%) ▲ 거리(30%) ▲ 성적(20%)
신입생	▲ 수도권(경기/인천) 지역 50점 ▲ 비수도권 및 해외 지역 100점	▲ 수도권(경기/인천) 지역 50점 ▲ 천안 춘천 아산 등 수도권 지하철 권역 지방 80점 ▲ 비수도권 및 해외 지역 100점
사회적 배려 계층	무조건적 우선선발	2인실 기준 우선선발 기회 부여

행복기숙사 선발 기준

비율이 높아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이 높아도 입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선발기준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거리로만 선발되는 신입생의 경우 거리점수가 2단계로 나뉘는 선발방식에 대한 단계를 세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리점수를 세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과 재학생의 거리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자치위원회는 “신입생의 경우 기숙사 지원 당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오로지 거리에 따른 점수 차등을 주어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변경 후에도 선발기준에서 소득분위는 50%의 반영 비율을 유지한다. 대신 우선선발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면 무조건적인

우선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2인실을 기준으로 우선선발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그러나 변경된 선발기준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있다. 오아라(무억학 20) 씨는 “반영 비율이 바뀌어도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여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느낌이다”

며 “다른 학교처럼 거리 반영을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위원회는 “현재는 추가 변동 계획은 없다”며 “선발기준에 대한 의견이나 기숙사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치위원회로 연락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행복기숙사 전경

(사진=대학주보DB)

축제부스
‘정신과’
논란 빚어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정전신) 학생회가 축제 부스 컨셉을 ‘정신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전신 학생회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캠퍼스 대동제 ‘경리해제’에서 부스 컨셉을 정신과로 선택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누군가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생회의 고려가 깊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전신 이준호(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8) 학생회장은 21일 사과문을 통해 “진행 예정이었던 정전신의 공대 부스 컨셉 ‘정신과’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제가 된) 컨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유쾌함’이라는 명분 아래 한 명의 학우분에게라도 상처를 드리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활동에 있어 모든 학우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진행 절차

(※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2. 실습 기간 : 2022.07.01.(금) ~ 2022.08.31.(수) [2개월]

3. 학생 참여 기준

- 가. 현장실습 진행하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참여가능
-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불가
- 다.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4. 학교 지원 사항

-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나. 학점인정 : 실습일 수 기준 18일당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유의사항
20일 이상~36일 미만	3	- 서류심사 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단기현장실습의 경우,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중 한 가지의 이수 구분만 인정) ※ 국제대학, 이과대학 화학과는 학과지침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36일 이상~54일 미만	6	- 서류심사 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종료 후 학점인정) -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은 공휴일 및 각종 휴일은 실습일 수로 인정하지 않음
다.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가.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 시설·물품 제공
- 다. 실습지원비 지급 :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 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6. 신청 방법

- 가.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학과심사	기관선발
1차	2022.04.13.(수)~	2022.05.02.(월)~	2022.05.10.(화)~	2022.05.13.(금)~
	2022.04.27.(수)	2022.05.09.(월)	2022.05.11.(수)	2022.05.19.(목)
2차	2022.05.06.(금)~	2022.05.23.(월)~	2022.05.30.(월)~	2022.06.03.(금)~
	2022.05.17.(화)	2022.05.27.(금)	2022.05.31.(화)	2022.06.10.(금)

- 나. 신청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1)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 2)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 3)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4)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7. 문의처

홈페이지	E-mail	서울C	국제C
http://intern.khu.ac.kr	intern@khu.ac.kr	02-961-2352 김이레 연구원, 김희재 주임	031-201-3925 음수민 연구원

※ 2022-여름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